

‘랭플릭스’로 넷플릭스·유튜브 보며 재밌게 영어 공부한다

(영어 학습 앱)

도전! 스타트업

세타원

영상에서 영어 단어·속어 자동 추출
원어민 따라하는 웨딩 학습 최적
월 사용자 1만명... 유료 구독자도 ↑
일본어, 중국어 등 8개국 언어 활용
AI 기반 STT 기술 자체 개발
API 형태로 영어교육 기업 제공

“숫츠 보면서 영어공부하세요.”

‘영어공부계의 틱톡’을 꿈꾸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영어 학습 앱 ‘랭플릭스’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세타원’과 이를 이끌고 있는 안상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세타원은 사람의 말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STT(Speech-to-text) 기술을 자체 개발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영어 교육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교육기업 YBM과 손 잡고 기술 고



안상민 세타원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육용 음성 처리 기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Deeptech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의 비즈니스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B2C 앱 ‘랭플릭스(langflix)’와 B2B 시장을 공략하는 STT 기술 API 사업 두 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영어권 사람들이 랭플릭스를 이용해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타원이 선보인 영어 학습 앱 랭플릭

스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튜브 영상은 자신이 주소를 링크를 하면 된다. 넷플릭스 영상 중에선 랭플릭스가 저작권을 확보한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로는 보다 다양한 학습을 위한 이중자막 확장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안 대표는 “랭플릭스는 어떤 영상을 넣어도 자동으로 영어 단어·속어를 추출해준다. 특히 원어민 음성을 들으며 발

음, 억양 등을 따라하는 웨딩 학습에 최적화 돼 있다. 그래서 학습자는 썸 윈 어민 표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엔 짧은 영상이 유행이다. 랭플릭스는 숫츠를 보면서 영어공부를 더욱 재밌게 할 수 있는 ‘숫츠 탭’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지 1년이 조금 넘는 랭플릭스는 현재 월 사용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유료구독자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새로 서비스할 숫츠 탭이 고객들의 발길을 더욱 이끌 것이라 기대다. 랭플릭스의 1년 구독료는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랭플릭스는 영어를 한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 등 8개국 언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언어 확장판이 이미 구축했기 때문이다. 유료 고객 대부분은 현재 한국인이다. 그러나 매출의 5% 정도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좋은 징조다. 4월부터는 다양한 SNS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랭플릭스는 한때 앱스토어 교육 부문에서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세타원은 AI를 활용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STT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사람이 말하는 100개의 단어를 AI가 100개 모두 완벽하게 문자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95개 정도까지 왔다. 97개까지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다. 지금은 영어학습 모델 데이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인의 음성 데이터에 특화된 STT 기술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타원의 STT 기술은 현재 DYB 최선 어학원에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서 독립한 인큐랩플러스에도 아동용 STT 등 세타원 기술이 쓰이고 있다.

안 대표는 어렸을 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감명깊게 읽었다. 대학에서 산업 공학을 전공하고 군대를 마친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교육 분야는 그런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발급

중기부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최대 1000만원 한도... 사용자 추가
신용점수 요건·업력 기준 등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돕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즈플러스 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용자처를 추가했다.

우선 신용점수 요건은 기존 NICE 신용평점 595점~879점에서 595점~964점으로 확대했다. 업력 기준도 1년 이상에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 전경.

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힘내GO 카드’,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 등 지역신보의 유사 보증상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한도 제한 없이 최대 1000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도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해 의류, 잡화 등의 사용자처도 추가했다.

비즈플러스카드의 주요 혜택인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료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신, 작년과 달리 최대 5년 동안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비즈플러스카드 보증 신청은 23일부터 지역신보 ‘보증드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카드발급 신청도 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이나 지역신보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벤처협, 6개 기업과 중 ‘AWE 2026’ 참가

글로벌 시장 진출·수출 지원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수출을 지원했다.

벤처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소비자 전자 전시회인 ‘AWE 2026(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 2026)’에 6개 벤처기업과 함께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가시적인 수출 및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AWE 2026’은 AI,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 XR, 로봇틱스 등 미래 소비자 기술 트렌드가 집결되는 대형 산업 플랫폼으로, 올해는 1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과 20만명 규모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벤처협회는 이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K-벤처의 혁신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질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참가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용 부스 운영과 현지 바이어 매칭 등을 전방위로 지원했다.

아울러 참여 벤처기업들은 제조·유통 관계자, 투자자, 정부 관계자 등의 현장 미팅을 통해 투자 연계 및 제품 현지화 등 구체적인 사업화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루텐스는 13개 기관과 접촉해 이 중 4개사와 투자 및 계약을 협의 중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2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케일업금융은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한 산유동화방식(P-CBO)을 활용해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중진공은 이번 공고를 통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5년 만기로 12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중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KCC, 서울시 표준 색상집 발간

KCC가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표준 색상집(사진)을 발간했다.

22일 KCC에 따르면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색이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각종 컬러버레이션 제품에 일관된 색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 색상집(Seoul Color Standard Collection)’을 제작·배포했다.

표준 색상집은 서울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컬러 가이드로 올해의 색인 모닝옐로우를 비롯해 서울공공시설표준색, 서울안전색, 서울대표색 등이 담겨 있다.



앞서 KCC는 모닝옐로우 개발 과정에서 구현을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촬영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수천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닝옐로우를 2026년 서울색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CC는 다양한 색상 후보군을 실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 조색 기술을 활용한 실물 색채 샘플을 제작해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